

작은 적극행정이 만든 큰 변화, 재경부 1월 베스트 소확행 선정

- 1월 베스트 소확행으로 기획조정실 유경숙, 허창혁 사무관 선정
- 부처별 산재된 생활밀착 정책의 주요 변화를 국민의 입장에서 체감하기 쉽도록 '2026년 달라지는 민생체감 정책'으로 정리한 성과

재정경제부는 2.6(금) 1월의 **베스트 소확행**(소소하지만 확실한 적극행정)으로 부처별 흩어져있던 **생활밀착 정책**을 국민의 입장에서 체감하기 쉽도록 재구성하여 「2026년 달라지는 민생체감 정책」을 마련한 **기획조정실 유경숙, 허창혁 사무관**을 선정하였다.

「재경부 소확행」은 뚜렷한 정책성과를 낸 소수의 직원에게 연말에 포상이 집중됐던 것과 달리, 일상적인 업무 과정에서의 **작은 아이디어나 적극적 태도**로 업무성과를 향상시킨 실무자들을 연중 상시격려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.

지난 1.8(목) 제1호 「재경부 소확행」 발표 이후 높은 관심 속에 **매주 1건씩 총 4호***를 발굴하였으며, 각 실국의 총괄과장급으로 구성된 심사단의 투표를 통해 1~4호 중 최종 **1월 베스트 소확행**을 선정하였다. 1월 베스트 소확행으로 선정된 **유경숙, 허창혁 사무관**은 부총리가 직접 시상하고 격려금 등 추가적 포상도 제공할 예정이다.

* 제1호: 신국제조세규범과 김정아, 유선정 사무관 / 제2호: 국제기구과 박수영 주무관
제3호: 대변인실 이성국 사무관 / 제4호: 기획조정실 유경숙, 허창혁 사무관 [☞참고]

재정경제부는 앞으로도 매주 「재경부 소확행」과 매월 「월별 베스트 소확행」을 선정·발표하여 **일상 속 적극행정이 조직문화에 착근**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기획조정실 혁신정책담당관실	책임자	과 장	김의택 (044-215-2530)
		담당자	사무관	오승상 (dhtmdtkd@korea.kr)
			사무관	박주현 (zoopark@korea.kr)

참고

1월 제1~4호 소확행 선정 사례

구분	선정 직원	소확행 사례
제1호	신국제조세규범과 김정아, 유선정 사무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25년 하반기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에 대한 국제회의 논의 과정에서 환급형 세액공제는 당초 논의 의제에 없었으나, 이 점이 우리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- 국제회의에서 최초로 해당 의제를 제안하고, 다자회의·양자 면담 등 OECD 회원국 설득을 통해 끝까지 관철시킴으로써 우리 기업의 세부담 경감에 기여
제2호	국제기구과 박수영 주무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제금융기구에 우수인재를 추천하려 하여도 참고할만한 인재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, 국제기구에 관심있는 인재를 DB화하여 맞춤형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'국제금융기구 인재정보시스템' 구축 - 그간 주로 담당했던 업무와는 전혀 다른 영역이었음에도, 차분히 예산 확보, DB 구축, 대외홍보 등 업무 쏠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우수인재의 IMF 등 국제금융기구 진출에 기여
제3호	대변인실 이성국 사무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보도자료 배포, 대외메시지 전달 등 업무 특성상 새벽이나 주말 등 업무 외 시간에 긴급한 연락이 잦음에도, 늘 차분히 재경부의 대외메시지를 전파 - 중요자료는 언론사별로 일일이 워터마크를 삽입하고 발송대상을 전수점검하여 개별 발송하는 등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항상 적극행정을 실시
제4호	기획조정실 유경숙, 허창혁 사무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생활밀착 정책을 발굴, 국민체감 기준으로 재구성하여 '2026년 달라지는 민생체감 정책'과 '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'를 함께 발표 - '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(97년) 이후 최초로 국무회의(1.20일 생중계)에서 대통령이 직접 달라지는 주요 민생정책을 소개하는 등 국민들의 정책인식 제고에 크게 기여